삼성전자, 합성수지 사급제도 도입

원자재 가격 변동 부품단가에 반영… 협력기업 상생경영 7대 방안 발표

삼성전자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지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통해 그동안의 상생활동이 1차 협력기업 위주였던 것을 감안해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곳은 직거래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기업이 되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최대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협력기업의 설비투자, 기술개발, 운영자금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부품단가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기업에 제공하는 사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등 대형가전에 사용되는 철판, 레진(수지), 구리 등 3대 품목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도를 향후 다른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1차 협력기업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2차까지 확대하고, 우수 협력기업를 대상으로 베스트 컴퍼니 제도를 도입해 2015년까지 글로벌 톱(Top) 수준의 협력기업 50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신기술 등 핵심역량을 보유한 곳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7>